



전남지역의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신진규)와 전남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지난 9월 10일 양 기관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학교 및 놀이시설을 만들기 위한 희망등불! 전남교육기부 업무약정 체결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안전 관련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특성화고 예비 산업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등에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는 전남지역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예비검사도 무료 기부기로 했다. 협회 신진규 회장은 "협회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남지역에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임 고문에 강성천 前국회의원



강성천 前국회의원이 지난 9월 1일자로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임 고문에 선임됐다. 강 신임 고문은 지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그 외에도 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한나라당 정책위 제5정조 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노동위원장 등을 거쳤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18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강 고문은 "협회 구성원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동시에 협회의 발전과 위상강화에도 기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으로 사랑으로' 산업재해 예방



대한산업안전협회 중앙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이 주관한 '안전으로 사랑으로 산업재해를 줄입니다' 캠페인이 지난 9월 5일 서울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만남의 광장에서 실시됐다. 이날 협회 임직원들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알리는 팸플릿을 나눠주며, 산재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모으기 위해 '나부터 안전 실천하기'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가질 수 있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지회, 이웃 사랑 실천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지회가 최근 청주시 명암동에 위치한 명암노인요양원을 찾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충북지회 임직원은 섹스폰 연주공연 등을 통해 요양원의 노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시설물점검 및 청소, 소독 등의 봉사활동으로 바쁜 일과를 보냈다. 충북지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철강업종에 안전문화 확산 노력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나주영)이 지난 9월 19일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신진규 회장, 나주영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협약체결 내용은 ▲사업장의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등의 공동 실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정보 교류 등이다. 협회 신진규 회장은 “협회의 안전관리 노하우가 포항지역 산업현장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지역 사업장의 안전문화 조성과 근로자들의 건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남지회 목표출장소 새출발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남지회 목표출장소(지회장 김기열, 출장소장 정낙현)가 최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 (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 과학기술진흥센터로 확장·이전하고, 지난 9월 10일 이전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진규 회장을 비롯

한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신진규 회장은 “이전을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고, 관내 사업장에 선진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전직원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낙현 목표출장소장은 “회원들과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관내 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대정회 본격 활동 예고



대한산업안전협회를 정년퇴직한 사람들의 모임인 '대정회'가 지난 8월 30일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협회 전재성 관리이사, 김성철 기술이사, 조행규 대정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산재예방 사업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전재성 관리이사는 “여러 선배님들이 근무시절에 축적한 현장 경험과 경륜이 모아진다면 협회의 산재예방 활동 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선배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울산지회, 주택관리사협회와 재해예방 협력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지회장 성기철)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광역시회(회장 박문광)가 지난 9월 3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아파트단지 등의 공동주택 관리 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양 기관은 이들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진단, 컨설팅, 교육, 안전관리 업무위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울산지회 성기철 지회장은 “이번 협약이 다발재해 업종인 서비스업의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